

한화그룹, 중동 방위산업시장 공략

방산 계열사 'IDEX 2021' 참가
국방로봇 존 등 통합 전시관 운영
천검 등 정밀유도무기 마케팅 진행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이 방위산업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중동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중동은 막대한 오일 머니를 기반으로 국방강국을 꿈꾸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선두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등이 매력적인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손꼽힌다.

한화그룹은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가 21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IDEX 2021'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IDEX는 격년으로 열리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60여 개국에서 13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한화 방산 계열사들은 '국방로봇 존'과 '지상장비 존', '방산전자 존' 등으로 구성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방로봇 존에서는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과 차륜형 장갑차 탑재용 원격사격통제체계(RCWS)의 실물이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IDEX 2021 한화 통합전시관 전경.

공개된다.

다목적무인차량은 민·군 협력과제로 국내에서 개발된 사륜구동 전기추진 방식의 국방 로봇으로 원격주행, 병사자동추종, 자율이동 및 복귀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차륜형 장갑차용 RCWS는 130kg급 경량형 모델을 선보인다. 앞서 개발된 해군 차기 고속정 및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용 RCWS보다 영상 식별 성능과 표적추적 기능 등이 향상됐다.

지상장비 존에서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비호복합, 120밀리 자주박격포 등 대한민국 대표 지상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방산전자 존에서는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최첨단

함정전투체계(CMS)를 전시한다.

CMS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하는 모든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되는 첨단 시스템으로 함정에 탑재된 센서와 무장 등을 통합해 전술상황 평가, 지휘결심, 무장 선택, 교전 등 해상 전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화가 개발한 공대지미사일 천검 등 정밀 유도무기체계 관련 마케팅도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철 한화디펜스 해외사업본부장(상무)은 "이번 IDEX 전시회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맞는 맞춤형 방산 솔루션을 적극 홍보해 'K-방산'의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국적항공사, 무착륙 관광대전

대한항공 인천공항서 출발 제주 비행
제주항공 대마도 선회 편도 9만9000원
에어서울 면세·기념품 혜택 제공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 시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객 수요 추락 속 관광비행 상품을 놓고 전 국적항공사가 경쟁을 벌여서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국제관광비행 상품은 A380 항공기(KE9021편)에 탑승해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강릉-동해안-부산-대한해협-제주 상공을 비행한 후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상품을 처음 선보였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무착륙 관광비행 전용 동선을 이용했다. 기내면세품은 사전 구매를 통해 구입하게 했다. 대한항공은 3월에도 한진관광과 함께 3차례(6일, 13일, 27일)에 걸쳐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 판매 방식을 통한 여행사와의 상생에 방점을 두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도 면세쇼핑을 할 수 있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추가 운항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 7일과 13일, 21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대마도 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



에어서울이 지난 20일 진행한 해외 무착륙 비행에 탑승한 한 여행객이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편을 운항한다. 해당 항공편은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며 탑승 시에도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운임 기준 9만 9000원부터 판매한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이달 22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해당 항공편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편당 114석만 판매한다.

국제관광비행 항공편의 1인당 면세 한도는 600달러, 구매 한도는 5000달러다. 시내 면세점 및 온라인 면세점, 온라인 기내 면세점,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에어서울은 주말 동안 진행한 해외 무착륙 비행에서 파격적인 면세 할인과 함께 다양한 기내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해외 무착륙 비행 탑승률은 약 98%를 기록했다. 에어서울은 3월 6일, 14일, 21일 세 차례 해외 무착륙 비행을 운항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현대중, ESG 경영 가속... 녹색채권 '그린1' 획득

기술력 통해 환경개선 효과 기여

현대중공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적극적이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녹색채권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9일 나이스신용평가의 녹색채권 평가 결과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유해 물질 저감에 앞장섰던 점을 인정받아 최우량 등급인 '그린1'을 획득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5일 1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선박 건조와 기술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 투자를 목표로 하는 ESG 채권 중 하나이며, NI

CE신용평가의 인증등급은 발행 자금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적합성,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 자금관리의 적정성, 외부공사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초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을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로 선임하고, 전 계열사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해 ESG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는 그룹내 각 계열사의 이사회에 ESG 관련 성과와 이슈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 ESG 경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을 건조, 유해물질 저감에 앞장서는 등 환경개선 효과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

으며, 향후 조달자금을 친환경 선박 건조 및 기술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간 친환경 선박 건조와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 녹색채권 최고 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ESG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 조선업계 최초로 산업은행과 총 4800억원 규모의 그린론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현대중공업지주는 판교에 짓고 있는 글로벌 R&D 센터를 친환경 요소로 설계, 건립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그린론(Green Loan)을 체결하는 등 ESG 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양성문 기자 ysw@

LG전자, 투인원 노트북 '그램360' 출시

화면 돌려 태블릿 모드 활용

LG그램이 태블릿 모드로 변신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22일 LG 그램 360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램 360은 투인원 노트북이다. 키보드가 필요할 때는 노트북으로 사용하다가, 화면을 돌려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램의 정체성도 그대로 이어갔다. 무게가 1480g에 불과하지만, 80Wh 대용량 배터리로 사용 시간을 최대한 늘

렸다.

대화면도 계승했다. 16형과 14형 2종으로, 16:10 화면비 WQXGA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디지털 영화협회(DCI) 표준 색 영역 DCI-P3도 99% 충족한다.

디자인 완성도도 높였다. 모서리는 직각으로 마감했고,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소재를 적절히 사용해 무게를 줄이고 고급스러움도 잡았다. 색상은 옅시디안 블랙과 퀴츠실버, 토파즈 그린 등이다.

성능도 높다.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LG 그램 360.

/LG전자

타이거레이크와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Xe를 장착했다. 인텔 이보 플랫폼도 인증했다. 듀얼 슬롯을 적용해 추가 SSD를 장착할 수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

JY,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물러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내달 사의 표명 후 이사장 교체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2년 6개월 징역을 확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직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

달 중으로 이사회를 통해 이 부회장을 퇴임하고 후임을 임명하는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故 이근희 회장으로 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아 2018년 5월 연임하며 이사장으로 활동을 계속해왔다.

단, 삼성이 운영하는 다른 복지재단인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은 각각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상태다.

/김재용 기자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개선

전환 전 3회 이상 고지 의무 추가

앞으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자

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로 반영한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

/김나인 기자 silkn@